



지난 여름, 수련회가 있을때였다. 수련회 참가 여부로 아이아빠와 의견차이도 있었다. 아빠는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하냐고 망설였는데 간절한 나의 설득에 마지못해 승낙을 하여 성빈이가 출발을 하게 되었다. 1박2일의 혼자서만 떠나는 여행. 성빈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나오려는데 차마 발길이 안떨어져 다시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은 심정을 꼭 참았다.

아무일도 없이 하루밤을 보내고 온 아이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재미있어나는 인사보다는 몸구석구석을 보면서 출혈이 있었는지 살피는 나의 모습에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무사히 도착한 성빈이를 보고 내년에는 혈우캠프에 참석해야겠다는 다짐했었다. 그곳에

서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과 지내면서 자신의 병을 부담없이 받아들였으면 한다.

나는 그 때 결정했었다.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교육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아이의 모든 생활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성빈이는 성격이 차분하고 약간은 내성적이어서 스스로 몸조심을 하고 있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하고 큰 사고 없이 지내는 아이를 보고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든다. 산 너머 산이라고 했던가 고향으로 갈수록 자아가 생기고, 사춘기 때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수궁하면서 무난히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요”

## 인터뷰 - 초등학교 2학년인 김지훈 군

혈우병을 가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어머니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적응은 잘 할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병을 알려야 하는지’ 등의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정작 학교에 다녀야 하는 어린이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여 김지훈(8세)군과 어머니를 만나보았다. 지훈이는 혈우병A 중증환자로 인자 활성화도는 0.3%이다. <편집자註>

“학교에 가는 게 좋았어요. 친구들과하고 놀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을 입학 직전에야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았다는 지훈이는 의외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아플 때 학교에 가는 것이 좀 짜증나기는 하지만 학교에 가는 것이 싫지는 않아요. 사실 학원이 더 좋기는 하지만요.”

지훈이는 2학년인 지금까지 결석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아이들과 같이 체육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축구도 한다고 한다. “커서는 건축가나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지훈이가 입학할 때 담임선생님에게 지훈이의 병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 어머니의 설명을 들은 선생님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며 반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만 출혈이 있는 날에는 ‘지훈이가 오늘 좀 아프니까

건들지 말라’는 정도만 말한다고 한다.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팔꿈치 등에 출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하자 지훈이 어머니는 컴퓨터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하루에 두시간씩 하도록 하었다고 한다.

“오히려 다른 어머니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아이에게 지훈이 하고 놀 때 조심하라고 당부하시죠. 그래서 친구들과 놀 때도 다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양호실에 약을 비치하지는 않고 선생님께 연락처를 주어 다치거나 하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별로 다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학원에서 많이 다치죠.”

지훈이는 퀵보드도 타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탄다고 한다.

“지훈이 외삼촌이 혈우병을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전거나 퀵보드도 애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인라인스케이트는 꼭 부모와 함께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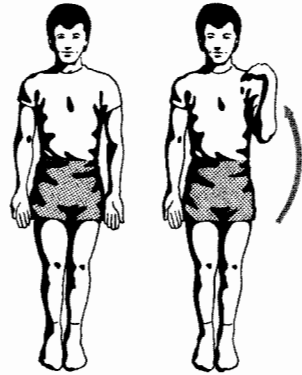
선생님이나 주위의 어머니들이 병에 대해 모를 경우에는 겁을 많이 내는 것 같다는 지훈이 어머니는 그럴 때 건네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根>

코멘트

## 혈우병의 물리치료(完) - 근육신장과 근육강화(str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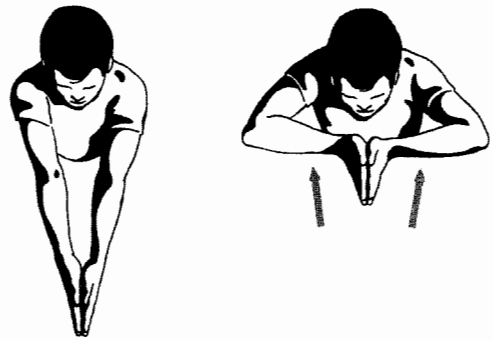
16

팔 들어올리기 : 그림과 같이 곧게 서서 손바닥을 앞쪽을 향하게 한 다음 어깨까지 들어올린 다음 팔을 내린다. 팔을 바꾸어 반복한다. 이 동작은 천천히 할수록 운동효과가 크다.(부담을 주고 싶다면 손에 쥐고 하면 된다.) 이 동작은 손과 팔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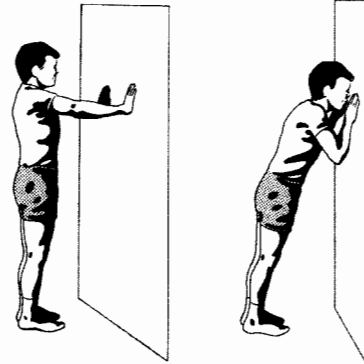
17

손 가슴 운동 : 서있는 자세에서 두 팔을 쪽 뺀 후 두 손을 마주 붙인다. 이 상태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손을 가슴쪽으로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 동작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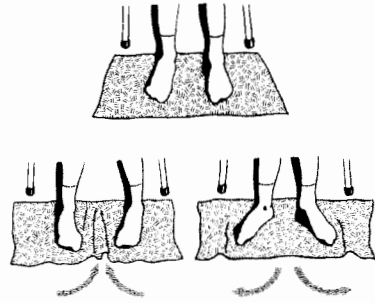
18

벽 밀기 : 두 팔을 어깨 넓이로 벌려 벽에 손바닥을댄다. 몸을 곧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코가 벽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보낸다.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의 자세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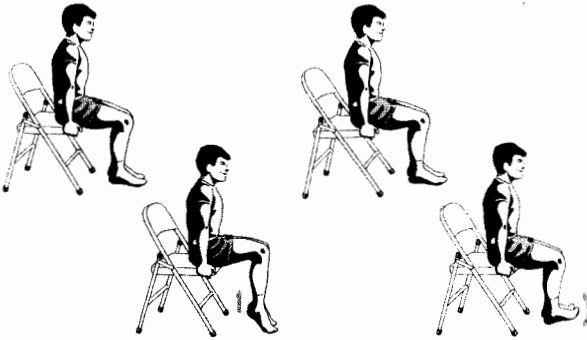


19

수건 트위스트 : 바닥에 수건을 넓게 펴고 의자에 앉아 수건 위에 두 발을 올린다.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안쪽으로 오므려 수건이 모이게 한다. 그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발목을 돌려 수건이 퍼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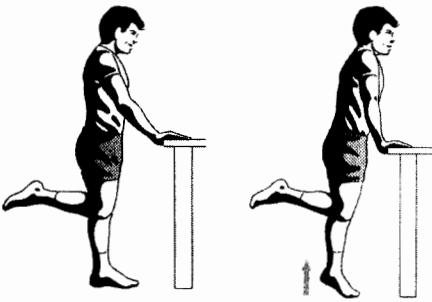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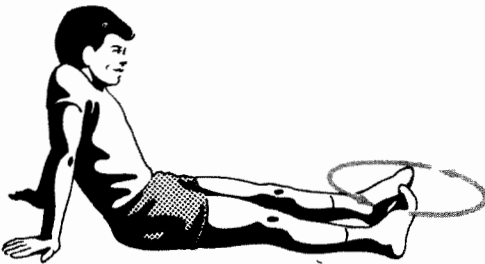
뒷꿈치, 발가락 들어올리기 :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자세로 의자에 앉는다. 발가락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들어올린다. 그 다음에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 다음,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 쪽을 최대한 들어올린다.

21



한발로 까치발 서기 : 탁자나 책상 등 지지할 수 있는 곳에 팔을 지지하고 한 발로 선다. 이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최대한 올려준다.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가 다른 발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22



발목 돌리기 :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 무릎이 곧게 편 상태로 앉는다. 발가락 끝이 원을 그리도록 발목을 돌려준다. 다른 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 “혈우병에 특화된 조사도구 필요”

## 삶의 질에 관한 연구와 혈우병

폴 지안그란데 박사  
 〈세계혈우연맹 의료부총재〉

연구자들이 삶의 질과 비용의 효과로 치료행위의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어떠한 병이나 질환에 걸려있는 지(혈우병과 같이)와 관련이 있으며 개개인의 역할의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많은 혈우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가 명백한 가운데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는 환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치료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확인하고 정량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비용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보건분야의 모든 부분에서 주요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많은 약제가 비교적 비싼 편인 혈우병과도 관계가 있다.

최근에 발간된 분석 중 흥미있는 것은 항체가 있는 혈우병 환자의 치료비용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Gringeri A et al. Blood[June 2003]) 대상환자 52명이 지난 18개월 동안 환자 1인당 월 평균 0.6회의 출혈을 기록했으며, 환자 1인당 월평균 치료비용은 20,375달러(한화 24,450,000원)로 치료약품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들 항체환자들의 삶의 질은 항체가 없는 중증 혈우병 환자와 비슷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특별히 정신적인 삶의 질

이 일반 대중과 비슷한 것에 비하여 육체적인 삶의 질은 당뇨병 환자나 신장투석을 받는 신장질환 환자 등 비 혈우병 환자와 비슷하였다. 이 중요한 연구의 결과는 항체환자에 대한 치료가 비록 비싸기는 하지만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점에서 보면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과 관련한 쟁점이나 진료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유용한 몇가지 설문 중에 아마도 건강관련 8개의 영역(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 제한, 육체적인 통증, 일반 건강, 활력, 사회적인 역할, 감성적 역할 제한,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있는 SF-36 건강 설문 도구(the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instrument, 세계 각 국에서 번역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건강 상태 평가 도구)가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들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유럽의 16개 혈우병 센터의 환자 1,03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의 결과가 지난해 발간되었는데(Royal S et al. haemophilia 8: 44-50[2002]) 일반인의 기대 평균치보다 모든 혈우병 항목에서 기록된 수치가 낮았음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예방요법을 받는 집단에서는 통증, 정신 건강, 사회적·육체적 역할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수치가 증가하였다.

현존하는 조사도구의 중요한 한계는 이들이 일반적인 진료에 적용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혈우병 환자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조사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조사도구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그룹의 범위를 넓히는 고려가 필요하다. 혈우병 환자를 위한 새로운 조사도구는 개발 중에 있다. 혈우병 어린이를 위한 조사도구는 유럽의 6개 혈우병 센터에서 시험 적용되어 그 결과가 이미 출간된 바 있다.(Bullinger M et al. Haemophilia 8[Suppl.2]: 47-54[2002]).

좋은 조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환자 단체의 지원은 이들 조사도구를 기초하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도움이 된다. 연구자들은 몇몇 국가에서 조사 대상 그룹을 조직하는 한편, 지난 해에 열린 세계혈우연맹 총회 기간 동안 조사도구에 포함하기 위하여 환자

단체에서 고려하는 주요 안건을 확인하였다. 이 안건들 중 약품의 안전성과 항체 발생, 좋은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 것, 특별히 운동에 관한 것, 개인적인 유대관계 등 몇몇 안건은 분명한 것이었으나, 여행을 위해서 도움을 받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에 기인한 일생동안의 자발성의 결핍,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주야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혈우병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불안, 소비성 재료의 처분 등에 대한 고려 등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혈우병에 대한 대부분의 의학적 연구는 약품의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혈액제품의 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삶의 질이나 다른 치료법과 제휴한 유용한 기능 등에 대한 자료는 극소수만 수집되어 있을 뿐이다.

질환별로 특화된 '삶의 질' 조사도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설문조사 방법이 역학조사 연구, 건강 경제학 분석, 새로운 약품의 임상시험 등 여러 분야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었듯이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코멘트**

##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푸른교실'

이 옥 정

〈(사)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중구지회 전임강사〉

혈우가족 중에도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비록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질환에 몸까지 불편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을까? 세상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강사로부터 그 방법을 들어보자. <편집자 註>

장애인정보화 교육을 시작한지 햇수로 3년째다. 우연한 기회에 특수학교 순회교육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참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컴퓨터란 단지 편리한 기계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또 다른 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장애인들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세상과 만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가 갖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민원업무를 보고 은행 일을 처리하며 접하기 힘든 분야나 사람들을 만나고 사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보화를 통한 복지실현이 아닐까? 이렇다보니 장애인들에게 있어 컴퓨터란 단지 편리한 기계가 아닌 필수품이란 생각마저 든다.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은 199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10만 명의 장애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2004년까지 20만 명을

추가 교육할 예정이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대학교 등(시각 14곳, 청각 8곳, 지체 64곳)에서 장애 유형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과목으로는 장애의 정도나 여건에 따라 인터넷 기초부터 OA과정, 홈페이지 제작, 그래픽 등을 하고 있다. 물론 교육기관마다 조금씩 교육과목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은 도움나라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지하철의 리프트 시설이 있는 곳의 표시라든가 장애 자가진단 정보, 재활교육정보, 직업훈련정보, 교통시설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www.itall.or.kr](http://www.itall.or.kr))

또한 배움나라([www.estudy.or.kr](http://www.estudy.or.kr))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듯 오프라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까지 다각도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 장애인들 중 정보화 교육의 혜택을 받은 장애인은 작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12.3%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의 컴퓨터 보급률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보급된 컴퓨터의 사양도 낮아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간단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으로



또는 취업을 해서 워드프로세서나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는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그래픽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 자활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교육생의 수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현황이 워낙 저조하여 각 직장과의 연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높은 장벽이 있다. 작년부터는 교육장으로 찾아오는 학생들뿐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찾아가서 하는 방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마우스 스틱을 물고 하기도 하고 발마우스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보조장비가 동원되지만 그들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속으로 나갔을 때 보이는 그 놀라움은 교육의 힘겨

움을 한순간에 잊게 해준다.

인터넷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사람을 사귀고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뉴스를 보고 전에 TV나 라디오에서 주는 정보가 전부였던 그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정말 새로운 세계일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장애를 넘어 서로 마음을 열 때 정보화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새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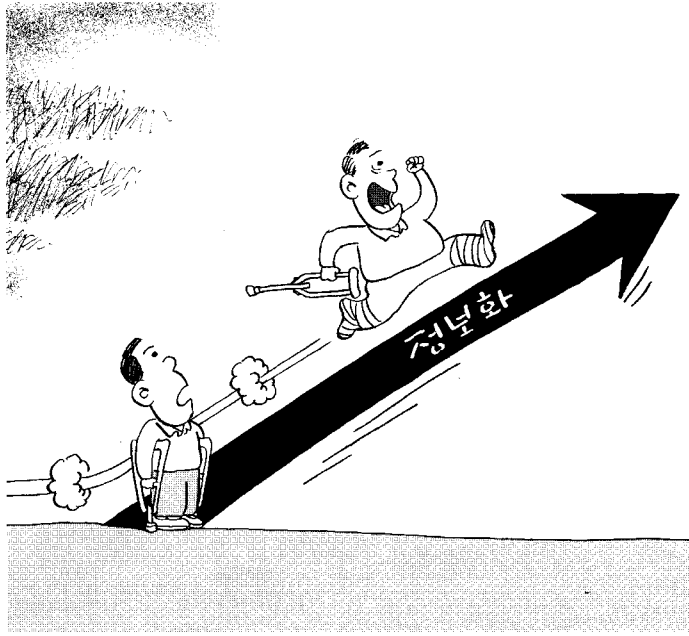
기쁘고 보람있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방문교육을 해야 하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노트북을 들고 가 교육을 하고 다시 갖고 나올 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컴퓨터가 있어야 교육에 따른 복습이나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장비가 없으니 안타깝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으로 중고PC를 수거해 조금씩 업 그레이드를 해서 보급해주는 사업을 병행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고PC를 구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자체예산으로 업 그레이드를 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어 보급률이 적은 편이다.

이럴 때 세상은 정보화와는 다르게 참 느린 속도로 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 해 두 해 교육생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메일이 오고 새로운 자활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그것으로 더 힘을 내게 된다. 다행히 지난달 체신청에서 중증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싼 가격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좀더 탄력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PC를 보급해주길 바라본다.

예전에 어떤 통치권자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세계 최고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었는데, 그때 그 조언자가 모든 가정에 무상으로 PC를 한대씩 나눠줘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 막대한 예산이라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소외계층에서도 정보화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리라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우리나라지만 장애인에게 대해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 들이 가득하다. 교육을 하다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정말 편견에 다름 아니란 걸 느낀다. 장애란 단지 불편함일 뿐이다. 그 불편함을 해결해주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 그것이 장애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길 일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

인 정보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기증하고 재가 장애인을 찾아가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는 교육받은 장애인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는데 보다 많은 인員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

3년 간 교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산재로 인해 후천적인 장애인이 된 학생인데 세상에 대한 냉소로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였다. 그는 인천자유공원을 오르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우연히 교실을 들르게 되었는데 컴퓨터를 배워보라는 말에 너무나 완강하게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막무가내로 '배워서 뭐하냐.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그를 설득해서 그냥 두 달간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나오라고 붙잡아서 두

달간 교육을 시켰다.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어두웠던 그의 얼굴이 장애인들과 어울려 두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났을 때는 몰라보게 밝게 변해있었다. 그가 배운 것은 컴퓨터 지식뿐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과 패배의식이 있었다고 말하며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 배운 것을 다시 베풀고 싶다고 찾아오고 그렇게 졸업생들의 작은 봉사모임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사랑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사랑이란 주는 것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아가 씨

를 뿌리는 풀씨 같다는 걸 느낀다.

비록 건물은 낡고 허름해도 그 안에서 꿈과 사랑과 희망을 키워가는 교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은 우리교실의 이름은 푸른 교실이다. 졸업생들이 직접 아크릴 판으로 만들어 붙인 푸른 교실이란 노란 바탕에 파란 형광 글씨. 색깔은 정말 촌스럽지만 그 글자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느낀다.

컴퓨터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음지의 뉴스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푸른 교실의 컴퓨터는 여전히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장애인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다. **코헬**

### 54호 정답 및 당첨자

지난 호 퀴즈에 모두 열두 분이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에 참여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우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많아져서 우리 혈우가족이 몇몇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에 좀 더 좋은 문제로 보답을 해야 하는데 지난 호의 문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가로 1번과 세로 1번의 첫 글자가 같아야 하는데 '중추가절', '증명사진'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모두 제대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머리 숙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낱말 맞추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코헬'지는 혈우병을 제대로 알리고, 혈우병에 대한 정보와 혈우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편집,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혈우가족이 다른 혈우가족의 수기를 게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정작 수기를 보내주시는 분은 적습니다.

혈우가족 여러분의 생활에서 우리나라는 진솔한 애기가 전해질 때 혈우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시는 글은 모두 소중히 다룰 것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 (중)	추	가	절		추	풍	낙	엽
명			정	어	리			록
사	춘	기		린		연	구	소
진		사	친	이	호		총	
	윤	회			도	제	제	도
현		생	가			비		자
미	구		야	생	화		금	기
	월	사	금		문		자	
부	산				석	가	탑	

▲ 정답자 : 강도일(경기도 군포시 당동), 남경훈(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성애선(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성한웅(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위복량(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이병길(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이현순(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정성훈(부천시 영도구 동삼동), 정양림(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조승현(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 가나다 順

# 낱말 맞추기

'코헬지'에 동봉한 엽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글도 받습니다.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말, 생각나는 이야기 등을 보내주시면 '코헬'지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1월 5일까지 재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편집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가로풀이〉

- 조선 세종 25(1443)년에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만든 우리나라 글자. 모음 11자, 자음 17자로 되어 있음.
- 어떤 말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 뜻, 표현이나 행위 등의 의도나 동기.
- 〈한단고기(桓檀古記)〉에 우리의 조상인 한국(桓國) 14세 자오지한웅으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로 중국 현원황제(軒轅皇帝)와의 싸움이 유명함. 현재 붉은 악마의 깃발을 '○○○○기'라고 부른다.
- 질투로 빚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제품. 우리나라의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이 유명함.
- 온 겨울 동안 죽.
- 권세가 있는 집안.
- 머리의 아픔. 머리가 아픈 증세.
- '논어'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말로, 옛것을 연구하여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찾아내는 일.
- 마음이 음흉맞아서 겉과 속이 다름. 속 다르고 겉 다름.
- 개성에 있는 다리로, 1392년 정몽주(鄭夢周)가 이방원(李芳遠)에 의해 피살된 장소로 유명.
- 미국의 여류소설가 펄 벅의 작품으로 빈농(貧農)으로 재산을 모아 대지주가 되는 왕룡(王龍)과 그 일가의 역사를 그린 대작이다.
- 현악기의 한 가지. 비파와 비슷하며, 몸체의 뒷면이 바가지처럼 볼록함. 강철로 된 네 쌍의 현을 꺾으로 뜯어 연주함. 가수 이효리가 모 음료수 광고에서 들고 나온 악기가 아마 이 악기일 겁니다.

## 〈세로풀이〉

-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8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주장한 것으로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
- 음악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거나 노래가 서투름, 또는 그러한 사람.
- 하늘에 제사 지냄.
- '은하수'의 순우리말.
-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두 품종을 교배시켰을 때 잡종 제1대에 나타나는 형질. 홀씨풀은 쌍꺼풀에 대해 ○○입니다.
- 벼의 겉겨. 매토밧겨.
- 예전에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 있는 빨간통. 거리의 일정한 곳에 설치하여, 부칠 편지를 넣는 통.
- (주로, 딱하게 되거나 가난하거나 할 때의) 사람의 처지나 형편.
- (문틈으로 새어 드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문짝 가를 돌아가며 바르는 종이.
- 대기의 온도.
- 조선시대에 청계천에 흐르는 수량을 측정하던 다리. 지금은 장충단공원에 옮겨 놓았다.
- 규칙적인 운동. 또는 가락에 맞추어 추는 춤.
- 고구려 출신의 당(唐)나라 장수. 파미르고원을 넘어 사라센제국의 동진을 저지한 것과 탈라스 전투가 유명함.
- 옛 속담에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 성냥이 없던 때에는 이것으로 불을 부쳤습니다. ○○돌.
- 한쪽이 막힌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봉한 후, 높은 열에 아홉 번 거듭 구워 내어 얻은 가루.

# 자랑스런 혈우인 상 후보 공모

한국혈우재단에서는 제1회 '자랑스런 혈우인' 상 후보자 추천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자랑스런 혈우인 상은 혈우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애쓰는 숨은 일꾼을 찾아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혈우인들의 미담이 되고 화합과 봉사정신을 키워 이를 본보기 삼아  
어려운 혈우인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Korea Hemophilia Foundation

## 한국혈우재단

- 접수기간 : 9월 1일~ 12월 31일
- 발 표 : 2004년 2월 11일(재단창립일)
- 시상내역 : 혈우인 1명(상패 및 부상)  
                  관련 인사 및 단체(상패 및 부상)
- 추천대상 : 1. 자활, 자립 활동 등 혈우인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2.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혈우가족간의 화합에 헌신한 자.  
                  3. 타의 귀감이 되고 혈우가족 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  
                  이 되는 자.  
                  4. 재단의 위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추천서  
(추천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www.kohem.org](http://www.kohem.org)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재단  
사무국(3층)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 한국혈우재단(02)3473-6100, 내선 2번 담당 노혜숙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